



몬스터를 잡아라!

글 · 그림 안성하 / 책고래



게임에 푹 빠진 아이, 게임 속으로 들어간 엄마

게임에 푹 빠진 아이 이야기예요. 지민이는 얼마나 게임을 좋아하는지 밥을 먹을 때도 게임 생각을 해요. 엄마 몰래 게임을 하려다 몇 번이나 야단을 맞지요. 그래도 포기는 못해요. 하루는 학원에 다녀왔더니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. 지민이는 재빨리 게임기를 켜지요. 그런데 게임기 속에 엄마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? 무시무시한 몬스터들이 나타나 엄마를 위협했지요. 엄마는 무사할까요?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게임은 우리와 참 가까워졌습니다.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손만 펼치면 환상적인 게임 세상이 펼쳐지지요.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게임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곤 해요. 아마 아이들 몰래 게임을 즐기는 부모님들도 많을 거예요. 그 중에는 아이들보다 엄청 레벨이 높은 ‘고수’가 있을지도 모르지요. 《몬스터를 잡아라!》속 지민이 엄마처럼요.

독후 이해 활동

📍 생각아 커져라 얍! 지민이는 왜 게임에 빠지게 됐을까 생각해 보고 지민이를 구할 방법을 찾아 적어 보아요.

원인

원인



구할 방법

구할 방법

Q 신문기사 만들기- 게임기 속으로 들어간 엄마와 몬스터들의 이야기를 신문 기사로 만들어 전해 보아요.

제목:		
	누가	
	언제	
	어디서	
	무엇을	
	어떻게	
	왜	

독후 활동 이어가기

Q 내가 만든 게임기-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기를 그려보고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보아요.

게임기 이름 :

Q 게임 속 몬스터들을 ‘가나다라마바사’ 주문으로 물리친 엄마처럼 나를 괴롭히는 나쁜 몬스터들을 물리칠 나만의 주문을 만들어 힘껏 외쳐 보아요.



(예) 사라져라 사라져라 편식 몬스터! / 커져라 커져라 땅꼬마 몬스터!

- _____
- _____